

◆ 교회소식 ◆

1.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마지막 여름을 잘 보내시기 바라며, 신앙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는 가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9월 4일부터 금요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모여주시기 발바니다.(시간 저녁 8:30)
4. 해외와 타지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어려운 일이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교회 성물봉헌에 동참하실 성도님들은 성물헌금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우리 지역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우소식 ◆

생일 :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 온라인헌금 계좌 안내 ◆

재정부(농협 471-01-119147 드림교회)
 선교부(농협 355-0005-8058-53 드림교회)
 건축부(농협 355-0005-8059-93 드림교회)

◆ 금주의 기도 제목 ◆

1.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2. 교회부흥과 재건축 성공을 위하여
3. 국가와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
4. 객지와 해외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
5. 건강과,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6. 사역자와 봉사자들을 위하여

◆ 8월의 교회일정 ◆

전교인 여름수련회(7월 31~2일)
 기관별 월례회(30일)
 담임목사 휴가(30일~)
 중구시찰회(10일)

2026표어: 하나 되어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빌 2:2-4)

◎ 8월의 표어 : 쉼과 휴양의 달



대한예수교
장로회

드림교회

담임목사: 박명호

Rev. PARK MYEONG HO

부목사: 김순길 장로: 최재동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113번길 48

042)532-4004. 533-5445

주일오전 영광예배

오전 11:00 인도/박명호 목사
 경배찬양 ----- 찬양단과 함께
 묵 도 ----- 인 도 자
 성서교독 - 교독문 40(시편 97편)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412장
 기 도 ----- 신두섭 안수집사
 성경봉독 느2:17-20 - 이정희 권사
 비전선포 ----- 비전 선언문
 말씀선포 ----- 박명호 목사

다시 세우게 하시는 은혜

찬 송 ----- 455장
 헌 금 ----- 다 같 이
 광 고 ----- 인 도 자
 봉헌기도 ----- 박명호 목사
 파송찬양 ----- 주 안에 우린 하나
 축 도 ----- 박명호 목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4)

새벽 은혜기도회

새벽 5:00 인도/박명호 목사 김순길 목사
 말씀강론 1독 성경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기도

주일오후 찬양예배

오후 1:30 인도/박명호 목사
 찬 송 ----- 446장 ----- 다같이
 기 도 ----- 박예찬 청년
 성 경 - 벧전 4:7-10 -- 인도자
 특별찬양 ----- 자원자
 설 교 ----- 박명호 목사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
 찬 송 ----- 434장 ----- 다같이
 축 도 ----- 박명호 목사

삼일밤 진리예배

오후 7:30 인도/ 박명호 목사
 묵 도 ----- 다같이
 찬 송 ----- 412장 ----- 다같이
 기 도 ----- 이정희 권사
 성 경 -- 엡 2:11-22 -- 인도자
 말씀인도 ----- 인도자
 하나되게 하신 그리스도
 찬 송 ----- 438장 ----- 다같이
 축 도 ----- 박명호 목사

성령충만 금요기도회

8월. 한 달 동안
 금요기도회는 자유롭게 합니다.

◆ 목양칼럼 ◆ <세 곤들의 신앙이야기>

교회에는 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꾼과 말꾼과 일꾼입니다.
 구경꾼은 멀찍이 섭니다. 그 밤의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마 26:58). 멀찍이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구경꾼의 자리는 안전합니다. 옷이 젖지 않고 손에 흙이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은혜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는 불 곁에 앉아 몸은 덥혔으나, 가슴은 끝내 차가웠습니다.

말꾼은 한 걸음 더 나아간 듯 보입니다. 입은 언제나 제단 앞에 먼저 가 있습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마 21:30). 말은 헌신의 문턱까지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그러나 문턱을 넘겨 주지는 못합니다. 교회를 가장 깊이 아프게 하는 것은 대개 반대하는 손이 아니라, 약속만 남기고 돌아서는 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면이 서늘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

일꾼은 다릅니다. 일꾼은 조용합니다. 주보에 이름이 오르지 않아도 새벽에 나와 성전 문을 엽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을 닦고, 아무도 세지 않는 의자를 정돈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마 9:37). 주님의 탄식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도 많았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다만 소매를 걷는 사람이 적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자리를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구경꾼은 한 걸음만 가까이 다가서면 되고, 말꾼은 어제의 말을 오늘 하루 안에 손으로 옮기면 됩니다. 거창한 결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헌신은 큰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고, 작은 순종에서 자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성도가 앓을 자리는 관람석이 아니라 밭입니다.

◆ 8월 예배 및 봉사위원 ◆

	기도위원	성경봉독	오후기도	특별찬양
1주	최재동	김경아	전교인수련회	
2주	이정희	김옥순	양승미	베드로목장
3주	김옥순	양승미	박종선	청년목장
4주	신두섭	이정희	박예찬	자원
5주	김순길	이은주	기관별	월례기도회
안내	신두섭 이미숙			헌금